

# 성탄의 의미, - 성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상규 교수**

(고신대학교 교회사학)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은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성탄절을 기념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기독교는 부활절은 중시했고 이를 기념했지만, 첫 3세기까지는 성탄절을 교회적 절기로 지킨 기록이 없다. 그러다가 4세기부터 성탄절도 교회적 절기로 지켜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교 축제일(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기 때문에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이 축제일에 남아 있던 이교적 풍습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컨대 크리소스톰(Chrysostomus, c. 349-407)은 성탄절이 적절치 못한 연회, 음주, 그리고 상업주의에 젖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일이 있다. 1600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다가 주후 400년에는 로마황제가 성탄일을 부활절, 주현절(The epiphany)과 함께 국가의 3대 절기로 공표했다. 이후 성탄절은 서구사회의 축제일로 간주되었고, 점차 상업주의적 경향을 띄게 되어 오늘의 크리스마스 축제는 성탄이나 기독교회와 상관없는 절기가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서 성탄, 곧 성육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맞을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 성탄의 때와 장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연호나 서력(西曆)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때를 거의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여 예수님의 탄생시 유대 통치자는 헤롯이었음을 말하는데 이 헤롯이 주전 37년에 왕이 되어 주후 4년 사망한 대 헤롯(Herod the Great)이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Augustus) 황제는 호적령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기원전 27년, 곧 그의 나이 32세 때 황제가 되어 44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나이 76세가 되던 주후 14년 8월 19일 사망했다. 이 두 가지 기록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4년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흔히 주전 4년으로 보고 있다.

예수님은 팔레스틴의 ‘떡의 집’(house of bread)이란 의미의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그의 대부분의 날들을 나사렛에서 보냈다.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나, 문화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나,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거주하지 않았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을 것이다.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으나 그곳은 지리적 중심이었다.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왼쪽으로는 유럽과 접한 곳이었다.

### 성육신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成肉身)은 인류 역사의 특별한 사건이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서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기 때문이다. 성육신에는 3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예언의 성취라는 점이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1,500여 년에 걸쳐 350회나 예언했다. 간접적인 경우까지 합하면 450회나 된다. 이렇게 볼 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성취되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고했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갈 3:16, 창 22:18)는 말씀으로 성취되었다. 이사야는 보다 분

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그리스도의 탄생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사 9:2)고 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과거형으로 표현됨)고 했다.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 700년 전에 그가 나실 장소에 대해 예언했다(미가 5:2).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말 3:1)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것을 가르쳤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다. 말라기의 예언 35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기술한 후 “이 모든 된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여(마 1:22) 모든 실현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임을 증거했다.

둘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했다는 점이다.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 첫 머리에서부터 이 점을 지적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 1:1)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요셉을 말할 때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1장 2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

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라고 말한다. 이 축약된 족보는 14대(代)씩 3그룹을 말하고 있다. 왜 14대로 정리하고 있을까? 이것도 다윗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숫자(數價)를 갖는데 다윗(דָּוִד)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3문자,

곧 다렛(ד), 와우(ו), 다렛(ד)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렛은 4, 와우는 6, 다렛은 4이므로 그 합은 14가 된다. 그래서 족보를 14대씩 3그룹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位)을 계승하는 왕임을 증거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위를 계승하는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이다.

셋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점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 점을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인데,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성령으로”(ἐκ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의 ‘으로’의 원어 에크(ἐκ)는 원인을 의미한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와 같은 부정모혈(父精母血)의 생물학적인 잉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했다. 예수님의 처녀탄생이 구약에서 예언되었으나(사 7:14), 요셉은 이를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 그는 은밀하게 약혼을 파기하고자 했다(마 1:19).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定婚)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더

강한 구속력이 있었다. 정혼은 결혼 이전의 상태이지만 혼인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었다. 신명기 22:23-24절에서는 정혼한 여인의 간음을 22절의 유부녀의 간통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혼상태는 보통 1년간 지속되는데,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결혼에 이르지 않는지만 공적으로 서로에게 속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정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에게 접근하는 것은 간음으로 간주되었다(신 22:23-27).

이렇게 볼 때 아내가 될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것은 명백한 간음이었다. 요셉은 이를 문제시 할 수 있었다. 여자가 정혼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다(신 22:24). 요셉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였으므로 얼마든지 문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공개할 경우 마리아나 마리아와 관계한 남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므로 요셉은 공개하려 하지 않았다. 마리아를 죽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도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은밀하게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다. 이런 문제로 번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마 1:20절 이하). 마리아의 잉태는 불륜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 준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으로서 태어날 아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sup>1</sup> 이것은 이

1. 천주교는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였으며 ‘마리아의 영원동정녀설’을 주장하지만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 복음서는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음을 증거

사야 선지자의 예언, 곧 “처녀<sup>2</sup>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에 나타나 있다(참고 요 1:14).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이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처녀의 몸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이것은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혈육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원죄(原罪)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시 51:5)고 고백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으로 죄 없이 출생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고후 5:21),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시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한 것이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베들레헴에서

하고 있다(막6:3). 그 외에도 마12:46-50, 13:55, 요2:12, 7:3,5,10, 행1:14, 고전9:5, 갈1:19 등은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 알마(חַמָּלָה)는 젊은 여자로 번역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처녀’를 ‘젊은 여자’(young women)로 해석함으로써 처녀탄생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다. 영어성경 RSV도 이 견해를 따라 사7:14절의 ‘하 알마’를 ‘the young woman’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하 알마’의 성경적 용례로 볼 때 ‘처녀’로 번역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용어는 구약성경에서 4번 사용되었는데, 창24:43절에서 결혼하기 전의 리브가를 지칭했고, 아가서 1:3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에서도 사용되었는데, 만일 이 단어를 ‘젊은 여자’로 해석한다면 아가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시편 68:25절에서는 이 단어가 동녀(童女)로 번역되었는데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나시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출생하신 것이다.

###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 이것은 오랜 역사의 질문이었다. 11세기의 안셈(c. 1033-1109)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Cur Deus Homo*)라는 책을 썼다. 성육신과 구원의 필연적인 관계를 구속의 도리로 설명하려했던 안셈은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의 부채(負債)를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오직 신인(God-man)인 그리스도만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을 설명했다. 흔히 그의 속죄관은 상업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안셈의 사탄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속죄관(the Ransom to Satan theory)은 13세기의 아퀴나스의 때까지 정통적인 입장으로 인식되어 왔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안셈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러나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성취되었다.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디모테전서 3장 16절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하는 자 없도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고 했다. 우리말 성경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μέγα ἐστὶν τὸ τῆς εὐσεβείας μυστήριον)라는 말



은 사실은 ‘거룩한 신비여’라는 뜻이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일은 그의 생애 모든 일들처럼 ‘거룩한 신비’이다. 이것은 모든 의문보다 큰 의문 (Beyond all question)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다(요3:16). 그래서 스펔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처럼’ 만큼 의미심장한 말이 없다”고 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이기도 하다.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부에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자’를 3장 17절에서는 ‘그 아들’이라 하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독생자란 오직 하나 뿐인 아들이라는 말인 동시에 오직 유일하신 길이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고 했다.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사건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신 일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 어떻게 축하하며 찬양하며 감사할까?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BC)과 이후(AD, Anno Domini, 우리 주의 해에서)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며,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기초한다. 고대이든 현대이든 많은 종교들은 어떤 역사적인 기초를 요구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기

보다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 혹은 관념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념이나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 종교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신화나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시점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추론이나 논리적 결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오심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 분을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빙자한 거리의 들뜬 상흔(商魂)도 문제이지만 아기 예수에 대한 유희적 축하는 진정한 경배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추운 겨울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없을까? 주위를 돌아보는 사랑과 배려, 섬김과 봉사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자 그것이 성탄에 대한 감사이자 경배일 것이다. 교회의 불빛은 찬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대한 거룩한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무의미 할 것이다.



글 | 이상규

이상규교수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신학대학원, 그리고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호주 장로교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공부했다. 호주신학대학(ACT)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고, 한국장로교신학회와 개혁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국제학술지 unio cum Christo의 편집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